선의 효과

직관 · 창의력 향상 "심신 안정"

참선수련의 궁극적 목표는 깨달음에 있다. 그 과정에서의 뇌생리학적 내지 정신의학적 효과는 괄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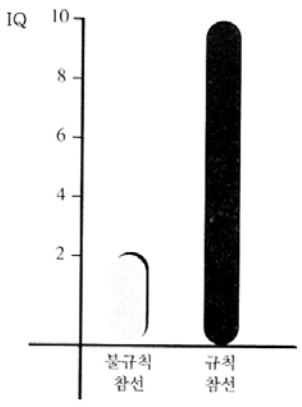
참선의 효과는 무엇보다 심신(心身)의 안정을 통한 최적의 감정상태를 유지하는데 있다. 이는 곧 직관력, 창의력, 상상력, 기억력 등을 향상시키고 예술적, 과학적 사고나 행동의 토대를 마련한다. 특히 현대병이라고 일컫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세계정신의학계를 비롯한 뇌생리학계가 실시한 임상실험에 의해 밝혀졌다.

미국 스탠포드대 의과대학이 7~8년 이상 줄곧 참선을 하여온 선승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에서 발견한 특이한 뇌파상태는 그같은 참선수련법의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참선 수련할 때 'α(알파)파'라는 뇌파가 주로 두정부(頭頂部)에서 전두부(前頭部)에 걸쳐 특이하게 나타났는데 이 'α파'는 인간의 의식이 가장 높은 단계에서 심신이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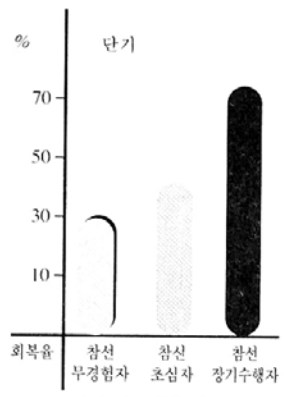
'α파 상태'일 때 뇌에서는 '엔돌핀'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이같은 엔돌핀의 분비는 뇌세포 파괴를 방지하고 노화방지에 기여한다. 또한 암세포 파괴에 가장 강력한 무기인 T임파구를 강화한다.

한편, 실험에서 특이할만한 사항은 초심자의 선정에서는 α파가 나타났다가도 주위에서 자극을 주거나 해서 마음이 동요하면 곧 안정 뇌파가 없어져서 좀처럼 다시 잘 안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6~7년 이상 수도한 선승에게서는 그런 자극에 곧장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자극이 없어지면 곧 다시 안정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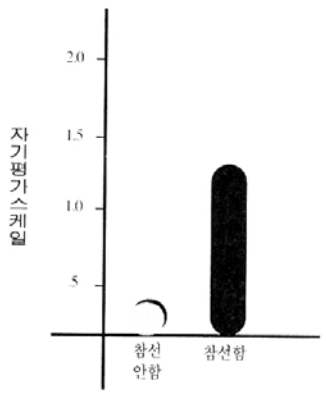
1992년 8월호 〈뉴스위크지〉에 발표된 최대의 대뇌생리학 당신을 과학적으로



◇지능지수의 향상



◇기억력 회복 테스트



◇일에 대한 만족도

선수행 엔돌핀 분비 뇌세포 파괴 방지
우울증·스트레스 해소 '임상실험 입증'

성공에 인도한다'라는 제하의 논설에 따르면 "'α파상태'에서 비로소 사람의 뇌가 맑아지고, 직관이며 창의력이 나타나기 쉽게 되고, 집중력이 향상된다. 또 기억력이 향상된다. 결국 사람은 α파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독창성과 상상력 등의 잠재뇌력이 발휘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선을 통한 심신의 안정은 최적의 감정상태를 유지, 심사숙고하게 한다. 또한 시(視)·청(聽)·후(嗅)·미(味)·촉(觸) 등의 감각도 예민해진다. 상상력도 풍부해 진다. 모든 예술적 심지어는 과학적 사고나 행동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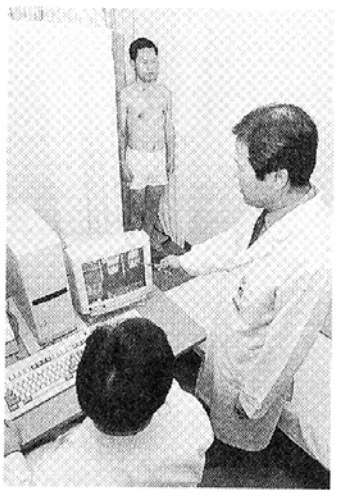
이는 실제로 박희선박사(前 서울대학교 공학대학 교수)가 1년간 참선을 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도표 참조〉

참선하고 있는 학생이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1년간에 약 10%의 지능향상을 보였을 뿐만아니라 뛰어난 순응력 창조성을 지닌다고 보고하고 있다.

현대 정신의학계는 이같은 선(禪)의 효과를 마약중독자, 정신박약아 치료를 위해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추세다. 교육계에서도 청소년들의 의식구조 개선에 참선수련법을 도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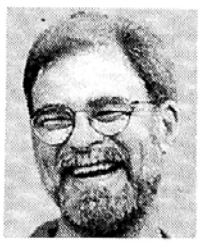
최근에는 IMF한파로 인한 직장인과 주부들의 우울증과 불안한 심리, 스트레스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필선 기자


◇참선의 효과는 심신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데 있다. 사진은 임상실험 모습.

NBA 시카고 불스 잭슨감독의 '선 효과' 경험담

"정신집중훈련 연승신화 기여"



불스팀을 맡던 날 나는 기독교인으로 배웠던 덕목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시선을 하면서 느꼈던 깨달음들, 라코타족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교들을 종합해 자아를 버리고 헌신과 자심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근간으로 새운 팀 분위기를 창출하겠노라고 스스에게 맹세했다. 불스팀을 맡고 선수들게 정신집중훈련을 시키자 경기를 더 하거나 승리하는 횟수가 더 많아졌을 만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더욱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

우리가 선수들에게 가르치는 명상훈련은 주의집중이다. 주의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억누르려고 애써 노력하지 않는 자유롭고 '텅빈' 마음의 상태, 즉 '초보자의 마음'을 먼저 연마해야 한다. 나는 명상강사 조지 멈퍼드를 초청해 3일간 선수들에게 주의집중 코스를 받도록 했다.

멈퍼드가 선수들에게 가르쳤던 기본적인 접근방법은 이렇다. 척추를 똑바로 편 채 의자에 앉아 시선을 아래로 둔다. 호흡을 하면서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정신을 집중한다. 마음이 사방을 헤매다닐 때, 정신을 흩어지게 하는 원인제공자가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그런 뒤 다시 호흡에 정신을 집중한다. 생각이나 느낌을 확인하는 과정과 다시 호흡에의 정신집중으로 되돌아오는 일련의 순환이 앉아 있는 동안 쉬지 않고 일어난다. 규칙적인 수련을 통해 감각적인 사건들과 그에 대한 반사작용을 서서히 제거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내면의 평온한 상태를 간헐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평온한 상태가 좀더 안정적으로 길어지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두려움 분노 고통 등과 같은 생각이나 느낌을 확인하는 기회가 점점 적어지게 된다. 나에게는 명상이 농구경기가 아주 잘 풀릴 때나 지독히 형편없을 때나 경기장 밖의 삶에서도 한결같이 나로 하여금 평정으로 유지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익한 도구다.

이러한 명상훈련의 결과 그룹을 지어 함께 말없이 앉아 있는 경험이 그들의 자의식에 미묘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았고 팀의 결속력을 한결 강화시켜 주었다. 때로는 주의집중 훈련을 코트까지 연장해 모든 연습을 침묵 속에서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집중력을 심오한 단계까지 끌어올리고 말없이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으며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필 잭슨(미 농구팀 시카고 불스 감독)의 〈NBA신화〉 중에서

'문답으로 풀어보는 禪' 158호부터 게재

진제스님이 말하는

산문안의 禪

"… 부처님과 조사의 산 진리는(佛祖大活句)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라(無傳亦無受)…"

67년 하안거 해제시 향곡스님이 진제스님에 내린 전법게이다. 불교선종은 이러한 전법과 인가를 통해서 선맥을 잇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왔다. 진제스님은 부산의 해운정사의 금모선원과 대구 동화사의 기초선원 선방대중들의 공부를 점검하고 있다. 선방 수자들에 대한 지도는 향곡스님의 게송처럼 전할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법을 전하는 것인만큼 어려움도 크다. 화두를 타파하면 스승을 찾아가 반드시 점검을 받는 것이 불가의 전통. 그러므로 바른 공부에는 선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제스님은 요즘 불교계 수행풍토의 문제점은 올바른 선지식의 지도 없이 수행하는데서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제 때마다 몰리는 선방의 수좌들에게 스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화두를 성성하게 챙기라는 당부. 그것은 일천성인의 이마위 일구를 투과하는 활구를 참구하여 만생명의 사표(師表)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혼침, 망상, 습기에 젖어 있던 중생이 화두를 참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늘을 찌를듯한 대용맹과 대신심만이 해결의 돌파구가 된다고 했다.

스님을 찾는 많은 납자들 중에도 경계에 부딪힌 이들, 자신이 깨쳤다고 주장하는 이들 등 많은 부류가 있는데 이때마다 스님은 그들의 공부수준에 맞는 화두를 간택해 지도하고 있다.

진제스님은 기초선원이 더욱 활성화되어 출가한 모든 이들이 2-3년간 참선을 공부하며 생활하도록 하는 기초총림으로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선을 세계 속으로 알리기 위해 박성배교수(뉴욕주립대)를 통해 저서 번역을 추진중에 있다.

"화두 참구 혼신 만생명의 師表되라"

강정진법사가 말하는

산문밖의 禪

"불교는 중생이 부처되고자 하는 종교입니다. 중생이 부처로 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무기와 번뇌의 존재인 중생을 자성(自性)이 삶을 주재하는 존재로 속성을 변화시키는데에는 올바른 수행과 수행법이 필수적인 것이죠."

재가자로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는 길'을 이끌고 있는 취암 강정진(姜丁鎭.63)거사는 수행의 정의와 수행방법의 확립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수행 경험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불교관을 정립하고 있는 강거사의 수행지도는 그래서 더욱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다. 무엇보다 그가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라는 신분이 수행하고자 하는 재가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는 각별하다. 강거사는 생활 속의 공부가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는 자신의 수행을 통해 체험한 구체적인 공부단계와 그 단계별 경계극복 등에 대해 아주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교육에도 단계가 있듯이 수행에도 관법, 염법(念法), 의심법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 '관법'은 수행자가 수행의 방편을 마음 속에 대두시켜 심안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항상 '정신'차리게 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특히 "선지식의 지도하에 수행의 참다운 정의, 수행방법, 수행단계에 대한 이해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느 누구도 따르지 못할 지고의 사상이므로 이 진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선호하는 외국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남아 있는 과제는 얼마나 체계적인 수행법을 세계 속에 알리는 것인가 하는 것에 달렸다며 그의 저서번역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불교계에 관(觀)을 중시하는 남방불교와 격외(格外)를 중시하는 북방불교가 조화롭게 병행된 체계적인 수행이 꼭 선결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한국불교가 수행의 체계를 잡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부산=천미희 기자〉

"관법·염법·의심법 단계별로 거쳐야"

공 고

지금까지 **삼론종 종단분규**를 지켜보신 **대덕스님!** 그리고 본 **종단스님과 사부대중께** 죄송한 마음 금할길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억척과 낭설이 분분한 가운데 다음과 같은 연유를 오늘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내용증명('97.10.28)을 보낸지 60여일이 지나도록 회답은 커녕 전화도 한통화없어 내용증명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지상공고하오니 읽어주시고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 판 결 문 ▣

1995. 5. 2 판결선고
1995. 5. 2 완료영수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1 민 사 부

판 결

◆ 사 건 94나21032 직무집행방해배제등
◆ 원고, 피항소인 대한불교삼론종(大韓佛敎三論宗)
●주지 ● 현 2동 5●9의 2● 우 ● 정 사
대표자 총무원장 이 ● 배
소송대리인 변호사 ● 태 ●
◆ 피고, 항소인 손 성 수(孫 性 洙)
서울 송파구 방이동 186의 18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용
◆ 최 종 종 결 1995. 3. 28.
◆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4. 6. 2. 선고, 93가합18745 판결
◆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내용증명(10月 15日字) ●

●봉스님! ●봉스님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종정의 자격을 상실한지 오래된 스님입니다.
끝끝내 덕 높으신 종도스님들을 우롱하고 있으니 승단에서 그냥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본 일은 없으신지요? 본인은 그 여러석응에 당집함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종●스님들의 체제니까 잘고있을 뿐인데 ●봉스님은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 업장만 늘어날 뿐 스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작 사인할것을 권해 주었음에도 종도다운 사랑분별이 되지 않으니 도대체 자격도 없는 종정을 고집하여 종도들의 수행에 방해되는 일을 해도 되는 것인지요. ●봉스님이 종정의 자격이 없는 이유 1. 스님은 1992년도 종도자격상실 (의무금미납부) 스님은 92년도 의무금 10만원과 93년도 6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종법 승니법 제 5.26항에 해당 2. 1992년 10월14일자 종정불신임안가결(가. 종도 종정 자격상실) 3. 종령이 무효인 이유(종령제1호 1993. 11. 12) 종정 자격상실후 발동 4. 속인도 아니하는 고소를 다반사로 하는 여문난 자세 5. 상좌가 해입로저 하는 짱(소●면 소재 ●용사)을 가로채 나에게 비싸게 팔려한 점 결론 1. 상좌 팽개치는 은사가 되서 말고 모든것을 떡지좌 하고 조용히 여생을 마치면 종도들도 찾아갈 것입니다. 2 내가 종정에 취임은 하였으나 종정책임을 하지않고 있으니 돌아오면 언제라도 종전과 다름없이 종도들은 스님을 종정으로 받들것입니다 3. 이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스님은 승려이기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아래와 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4. 이 권지를 영원히 보관하는 동시에 스님 사찰근처에 대구에서와 같이 한집 한집 스님이 그만둘 때까지 돌리고 신문에 게재시 보낼것입니다 5. 승려가 무엇이 할일이 없어서 자기 상좌시켜 소송이나 일삼고 말을 듣지 않으면 상좌이든 뭣이든 제탁도첩 하여 승려계에서 배장을 시켜고 하는 은사가 이 지구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이●봉씨앞 스님도 참 딱하십니다.나는 설마 그래도 스님의 정도가 아직은 살아있어 참회라도 할 줄 알았는데 누구나 이용만 해먹고 버리는 그 악습을 멈춰내어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최사하지만 금전라고소에 관해서 다음을 잘보고 깨닫기를 바라오.
1. 천모종단 정화시에 당신을 위해서 수족같이 다니면서 노력하였고 결국은 스님은 빼지고 나만 축출당하고 말았지요 2. 상기 종단에서 명예회손협의로 고소당해 스님이 당시 돈 백만원으로 해결했으나 나는 스님보다 돈을 벗갚질 더 썼으며 3. 삼론종 창종당시 어떤경비로 창종을 했었오! 당시 선실동 사무실 임대비 집기 전화기 2대, 복상 쇼파등 일체를 내가 부담했는데 뒤방이동 사무실 봉합지를 붙쳤다고 거짓 억지를 쓴니까 4. 잘실 총무원도 본인이 2000만원 으로 보증금걸고 이주 했었고 5. 스님이 끌어드린 박모 스님들 형제 농간으로 구로동으로 이주 할때도 본인이 부담한 500만원으로 3층을 얻어 갔었으며, 6. 장●싸 문제로 소송할때 당시 사무총장 ●봉스님이 사표까지 내면서 말렸으나 스님이 주장하여 결국 나는 물론 종도들 자신만 축내고 말았지요 7. 나는 4.5년간 스님자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나 없을때 넣어라고 줄고 충도 때어 준것 스님도 부인하지 않겠지요 8. 회의때면 회의 경비를 내가 다 냈었지요 9. 이곳 신협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은행이자로 2년간씩 2회(4년간) 금 1000만원씩 두번 주었다가 스님이 늦어지면 내가면저 차환하고 후에 입금되면 충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700만원 빌려주었으나 스님은 다을 버렸고 결국은 내용 증명으로 해결했었지요 10. 스님이 우●●사 에서 나에게 물었지요 학암스님이 삼론종 종단을 위하여 얼마나 보시 했느냐고요? 그래서 스님과 큰것만 계산하니 약 3500만원이 됐었지요. 11. 당시 삼론종 종도는 스님제자가 70%나 되었으나 스님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내돈을 스님에게 주어 종회석상에서 당신이 내는양 하였고 2년이 지나도록 말이없어 달라고 하니까 그중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는 삼론종에 보시하고 말았지요 ! 12. ●산 스님과 스님이 불화가 생겼을때 스님이 고소하여 ●산 스님이 스님과 싸우기 싫어 답변서만 내고 말으니까 1심에서 스님이 승소하고 2심에서 패한후 스님이 종도 몇 사람데리고 나가 ●주에서 한국불교삼론종으로 갈려다가 내가 종정으로 추대되니까 그대로 대한불교 삼론종으로 주저앉고 말았으며 13. 1994.9.6 나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 하였으며 14. 같은해 9.10. 석●산측 대책위원5명과 스님측 대책위원5명이 이천 설봉호텔에서 1992년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내용6항 쌍방은 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합의사항이 성실히 준수되는 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도 스님이 위반하였고 15. 같은해 10.24 상의하여 합의각서까지 쓰고 스님이 앞 13항의 고소를 무조건 취하 하였으나 16. 상기합의서 제 5항에 보면 (만약 어느측도 이를 위반 할시 위반한측은 어떠한 민·형사를 제기하드라도 패소한 것으로 한다) 이 합의서에는 스님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17. 그날 오후 스님의 일방적인 과기로 합의는 무상되고 따라서 상기 16항이 무효하다 할것이며 18. 다음날 스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등으로 나를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4년 제 30556호) 결국 나는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스님이 이래라 저래라 떠도록 주고 나서 그대로 실행하니까 사문서위조라고 억지부렸고 스님의 여모를 내가 보관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불이익을 감수할뻔 했습니다 19. 그것도 모자라 스님의 사서실장 김●한 명의로 또 고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4년 제33372) 를 하는 상식밖의 행위를 하다니요 그후 김●한에게 물었드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니 남의 이름을 도용하면서까지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한 스님의 처신에 종도들 보기가 민망할 따름 입니다. 20. 거기서도 끝이않나 당시 스님의 총무원장인 이●배 이름으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5년 제 41934호) 이러고도 실로 가관적으로 나를 제탁도첩했다고 신문공고 해일언하고 스님은 불교계와 본종단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위치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그자리를 물러남이 주변스님과 종도들을 바른길로 인도함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이천시 율면 원포리 80번지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임오사 조실 홍 재 규 혜암 합장

충청북도 주지 현2동 74-2
우●●사
주지 이 ● 봉 스님 귀하

● 내용증명(10月 28日字) ●

할 줄 알았는데 누구나 이용만 해먹고 버리는 그 악습을 멈춰내어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 최사하지만 금전라고소에 관해서 다음을 잘보고 깨닫기를 바라오.
1. 천모종단 정화시에 당신을 위해서 수족같이 다니면서 노력하였고 결국은 스님은 빼지고 나만 축출당하고 말았지요 2. 상기 종단에서 명예회손협의로 고소당해 스님이 당시 돈 백만원으로 해결했으나 나는 스님보다 돈을 벗갚질 더 썼으며 3. 삼론종 창종당시 어떤경비로 창종을 했었오! 당시 선실동 사무실 임대비 집기 전화기 2대, 복상 쇼파등 일체를 내가 부담했는데 뒤방이동 사무실 봉합지를 붙쳤다고 거짓 억지를 쓴니까 4. 잘실 총무원도 본인이 2000만원 으로 보증금걸고 이주 했었고 5. 스님이 끌어드린 박모 스님들 형제 농간으로 구로동으로 이주 할때도 본인이 부담한 500만원으로 3층을 얻어 갔었으며, 6. 장●싸 문제로 소송할때 당시 사무총장 ●봉스님이 사표까지 내면서 말렸으나 스님이 주장하여 결국 나는 물론 종도들 자신만 축내고 말았지요 7. 나는 4.5년간 스님자에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주고 나 없을때 넣어라고 줄고 충도 때어 준것 스님도 부인하지 않겠지요 8. 회의때면 회의 경비를 내가 다 냈었지요 9. 이곳 신협에서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은행이자로 2년간씩 2회(4년간) 금 1000만원씩 두번 주었다가 스님이 늦어지면 내가면저 차환하고 후에 입금되면 충당하고 그것도 모자라 700만원 빌려주었으나 스님은 다을 버렸고 결국은 내용 증명으로 해결했었지요 10. 스님이 우●●사 에서 나에게 물었지요 학암스님이 삼론종 종단을 위하여 얼마나 보시 했느냐고요? 그래서 스님과 큰것만 계산하니 약 3500만원이 됐었지요. 11. 당시 삼론종 종도는 스님제자가 70%나 되었으나 스님의 위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0만원의 내돈을 스님에게 주어 종회석상에서 당신이 내는양 하였고 2년이 지나도록 말이없어 달라고 하니까 그중 일부만 받았고 나머지는 삼론종에 보시하고 말았지요 ! 12. ●산 스님과 스님이 불화가 생겼을때 스님이 고소하여 ●산 스님이 스님과 싸우기 싫어 답변서만 내고 말으니까 1심에서 스님이 승소하고 2심에서 패한후 스님이 종도 몇 사람데리고 나가 ●주에서 한국불교삼론종으로 갈려다가 내가 종정으로 추대되니까 그대로 대한불교 삼론종으로 주저앉고 말았으며 13. 1994.9.6 나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 하였으며 14. 같은해 9.10. 석●산측 대책위원5명과 스님측 대책위원5명이 이천 설봉호텔에서 1992년 이전으로 환원하기로 합의하고 (내용6항 쌍방은 이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 합의사항이 성실히 준수되는 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것도 스님이 위반하였고 15. 같은해 10.24 상의하여 합의각서까지 쓰고 스님이 앞 13항의 고소를 무조건 취하 하였으나 16. 상기합의서 제 5항에 보면 (만약 어느측도 이를 위반 할시 위반한측은 어떠한 민·형사를 제기하드라도 패소한 것으로 한다) 이 합의서에는 스님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17. 그날 오후 스님의 일방적인 과기로 합의는 무상되고 따라서 상기 16항이 무효하다 할것이며 18. 다음날 스님의 이름으로 나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등으로 나를 고소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4년 제 30556호) 결국 나는 무혐의로 풀려났으나 스님이 이래라 저래라 떠도록 주고 나서 그대로 실행하니까 사문서위조라고 억지부렸고 스님의 여모를 내가 보관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불이익을 감수할뻔 했습니다 19. 그것도 모자라 스님의 사서실장 김●한 명의로 또 고소(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4년 제33372) 를 하는 상식밖의 행위를 하다니요 그후 김●한에게 물었드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 하니 남의 이름을 도용하면서까지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한 스님의 처신에 종도들 보기가 민망할 따름 입니다. 20. 거기서도 끝이않나 당시 스님의 총무원장인 이●배 이름으로 또 고소를 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5년 제 41934호) 이러고도 실로 가관적으로 나를 제탁도첩했다고 신문공고 해일언하고 스님은 불교계와 본종단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위치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금이라도 그자리를 물러남이 주변스님과 종도들을 바른길로 인도함을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짓말이나 부인도 못할 것이니 다음조건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一. 고법 판결문과 같이 1심 2심 소송비용을 방위동측 번호사님께 지불하고 영수증 사본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二. 충주측에 대한불교 삼론종으로 등록된 사암현판을 내리기 바랍니다.

三. 종단협의회는 귀하측에서 등록하였으니 그 명위를 혜암재규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四.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분담금을 받았으니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요구하니 금년(음.1997년)내로 이행하고 지상에 사과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이행치 않을시는 몇가지든지 걸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니 그리 아십시오.

1997년 12월 일

대한불교 삼론종

종정 혜암(학암) 재규 합장